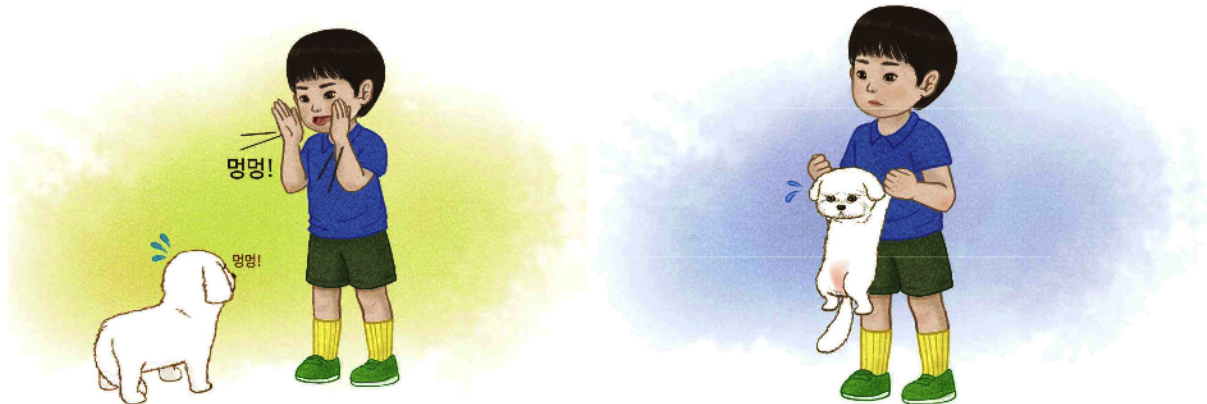


동물 보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어린이 인성 함양

글 김은숙 교육본부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생물 유기체와 같아서 일부 구성원들의 범죄적 행위에 의해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전환시킬 방법으로 사회 병리학자들은 도덕적 교육을 제안한다. 최근 친절과 관대, 연민, 정의감, 협동 등과 같은 인간 본연의 성품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도덕적, 인문학적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도 건강한 시민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동물 보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 보호 교육은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 동물 보호 교육을 통한 어린이 인성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의 필요성

보편적으로 ‘보호’라는 말은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약한 대상을 돌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저자가 의미하는 동물 보호란 이런 강약의 전제를 떠나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돕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생명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동물을 여전히 생명이 아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처럼 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는 동물 보호 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왜 어린 시절에 시작해야 좋을까?

생명을 대하는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어린 시절부터 익힐 때 건강한 인성과 정서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쉽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한 것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나 편견을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범죄의 시작은 많은 부분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교육과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은 전문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도 알 수 있다. 아동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물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어린이들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나쁜 의도보다는 성장 과정의 한 부분으로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위와 같이 자신의 반려견이나 거리에서 만난 강아지들에게 보이는 흔한 태도가 심각한 범죄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나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동물 학대 행위는 친구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생명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반사회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어린이 동물 학대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동물 보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범죄학, 아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 동물 학대 행위가 성인이 되어 저지르는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¹⁾

어린 시절의 다양한 인성 교육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험으로 왜곡될 수 있는 인성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연민을 가지고 보호하려는 태도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동물 보호 교육과 실천을 통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럼 한국의 학교나 가정에서 동물 보호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 국내 현황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동물 보호 교육 추가가 16.7%로 두 번째로 높았다.²⁾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과목에 동물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

1) 국내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 동물 학대와 성인의 범죄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종종 접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면 제약 상 외국 연구 사례 중 일부만 인용한다.

Hodges, Cynthia. (2008). "The link: cruelty to animals and violence towards people."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Michigan. Disponível em:.. Acesso em 22.

Kellert, Stephen R. & Alan R. Felthous. (1985). "Childhood cruelty toward animals among criminals and noncriminals." Human relations 38.12: 1113-1129.

McDonald, Susan M. (2012). "Childhood animal abuse and violent criminal behavior: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ept. of Correction,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and Research.

Trollinger, Mellisa. (2001). "The link among animal abus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Colorado Lawyer 30.9: 29-32.

2)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 P21.



물은 인간에게 부속된 존재라 간주하는 등, 이용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동물 보호 교육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동물 보호 교육에 대해 희망적인 것은 점점 더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동물 문제의 심각성과 어린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많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어린이의 감성에 부합하는 동물 보호 실천을 통한 올바른 인성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의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

동물 보호와 복지 나아가 동물권 확립 운동이 앞서 있는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는 학교, 동물 보호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적극적으로 어린이 대상 동물 보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년과 연령에 따른 내용과 교육 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료를 제공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교육 방법론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비전과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 사업

동물자유연대가 그리는 미래의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곳,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이 시행되며 건전한 동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러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 단체와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동물 복지나 동물권은 생소한 개념이고 용어이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의를 밖으로 표출시키고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동물자



유연대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1) 키자니아 동물 활동가 체험을 통한 생명 존중 교육 (4-12세 대상)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동물 보호 교육은 동물 복지 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동물 활동가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 활동가들의 실제 활동을 체험하고 구조된 동물을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연민과 보호 의식을 스스로 발현하는 것이다. 특히 동물 활동가가 되어 버려지고 다친 동물들을 돌봐주면서 동물도 우리처럼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유아 및 초등학교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시청각 자료 개발과 제작 (4-12세 대상)

유아 대상의 교육 자료는 동물은 살아 있는 인형이 아니라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생명체임을 인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 자료는 기존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감성에 맞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한 내용을 담는다.

(1)은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되었고, (2)는 올해 말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대상 동물 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건전한 동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